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2.27 (통권388호)



경제이슈

미국, 최고법인세율 7%p 인하 추진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경영노트

인재경영의 중요성

사회 트렌드

부자들의 탈프랑스

한국인 삶의 질, OECD 32국 중 31위

저널 브리프

중국 진출 성공을 위한 5가지 제언

洗心錄

'닭의 머리'를 찾아서

□ 미국, 최고법인세율 7%p 인하 추진

- 미국 정부는 22일 세제개혁안 발표를 통해,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인하할 방침을 밝힘
 - 조세 형평성 실현 : 정유 및 가스회사, 보험회사, 투자기업 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각종 세금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할 예정
 - 법인세 세수 증대 가능 :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비과세 및 보조금 폐지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2,50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계획
 -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신설 : 기존에는 외국 거점 자회사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수분을 보전할 계획

-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국가들¹⁾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자국내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 2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전월의 98보다 2p 오르며 기준치(100)를 회복
 - 가계의 소비심리 : 가계의 소비심리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며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전망 등 전반에 걸쳐 개선
 - 경제상황 인식 : 현재경기판단 CSI는 68, 향후경기전망 CSI는 80으로 전월대비 각각 3p, 4p 상승하여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증가
 - 물가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0%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목표치인 4%를 8개월 연속 상회하며 물가에 대한 우려 지속

- 소비심리는 2월에 소폭 개선되었으나 향후에는 이란 사태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와 물가 불안 등으로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

1) 일본 40%. 프랑스 33%. 독일 30%. 영국 28% 등.

□ 인재경영의 중요성²⁾

- 혁신의 지속성 여부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면서 혁신의 주체인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인재경영(Talent Management)이란 기존의 인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 핵심 인재의 집중 관리에 대한 주장과 이와는 반대로 조직 화합에 대한 주장 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
- 전통적인 인사관리에서는 교육과 보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재경영은 기업 비전 및 전략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략적 우위 확보를 우선시
 - 기업의 전략 변화에 따라 조직 구조는 물론, 인재경영 방법 또한 탄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의 확보가 중요
 - 최고의 인재보다는 기업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기업문화를 흡수시키는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인재로 육성시키는 시스템이 필요

< 인재경영의 실행 방법 >

	내 용
전략적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선발·유지·관리의 각 과정은 인재경영의 총체적 시스템으로 과정 간의 상호 일관성 유지가 필요 • IBM은 분기별로 전세계 자회사의 인사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개선
문화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력보다는 개인의 가치관 및 성향이 조직문화에 적합한가 여부가 중요 • 인도 IT업체인 인포시스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 관련 성적은 거의 배제하고 인·적성 검사 및 가치관 위주의 심층 면접만을 통해 선발
균형 감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의 고유한 인사제도와 해외 진출국의 이질적 문화를 동시에 반영한 균형 잡힌 인재경영의 실시 • IBM은 인재경영의 핵심인 성과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해외 지점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

2) 본 자료는 MIT Sloan Management Review의 ‘Six Principles of Effective Global Talent Management(2011.12)’를 요약 정리함

□ 부자들의 탈프랑스³⁾

-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고 르 피가로 신문이 보도
 -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은 해마다 1만 2000명 정도인데, 이들은 ‘세금과 부자들에 대한 공격’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
 - 프랑스를 떠난 부자들 중 벨기에에 20만 명, 스위스에 16만 명이 거주
 - 웬만한 프랑스 연예인과 예술가·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유명 의사·금융인·건축가·변호사·체육인들도 수년 전부터 외국에서 살고 있음
 - 요즘은 그 대열에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젊은 세대로 합류하고 있음
- 좌파인 사회당의 집권도 우려되지만 설령 우파가 집권한다고 해도 좌파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
 - “스위스와 벨기에 같은 국가들이 부자들을 데려가려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45%를 넘는다면 부자들이 선택할 것은 별로 없다”며 “부자들의 탈프랑스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

□ 한국인 삶의 질, OECD 32국 중 31위⁴⁾

-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OECD 소속 32개 국 가운데 31위에 불과하다는 분석. 이는 1인당 국민소득 순위(22위)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
 - 26일 OECD가 작성한 ‘OECD 국가의 삶의 질 결정 요인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은 전체 회원국 32개국 중 31위로 나타남
 - 행복지수는 일·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신뢰, 정치적 안정, 포용성, 환경, 소득 등 10개 변수를 종합해 산출하는데, 한국은 10점 만점에 6점대 초반에 머물렀음
 - 삶의 질 1위 국가는 8점대를 받은 덴마크였고, 스위스,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그 뒤를 따름
- 한국은 특히 집단 간 포용력 등 신뢰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 삶의 질이 낮은 국가는 소득 격차가 커 구성원 사이에 박탈감이 형성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 압력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음

3) “세금이 기가 막혀... 프랑스 부자들 해외로”(중앙일보, 2012.2.26)

4) “한국인의 삶의 질, OECD 꼴찌, 신뢰 부족한 나라”(조선일보, 2012.2.26)

□ 중국 진출 성공을 위한 5가지 제언⁵⁾

■ 중국에서 기반을 잡은 한국 기업가들은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음 5가지 항목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

① 계약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것

- 중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국 상거래 관습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음
- 중국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계약 사항은 영어 번역본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② 한족을 활용할 것

- 총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은 타 민족에 비해 배타적이나, 일단 신뢰를 형성하면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중국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한족을 중심으로 현지 인력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동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믿을만한 한족과 함께해야 함

③ 중국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

-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주요 홍보 경로인 언론·인터넷에 대해 강한 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

④ 국민 정서는 건드리지 말 것

- 중국인들은 민족적·국가적 자부심이 강해 중국이나 중국인을 무시하는 생각을 드러내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현지에서 중국인들과 대화할 때 과거 일본의 침략이나 중국 공산당의 부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음

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 중국인들은 외모를 치장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며, 돈이 많은 경우 오히려 초라한 외모를 통해 이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음
- 중국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하며, 행색이 부유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낭패를 볼 수 있음

5) '중국서 성공하려면 지켜야 할 5가지'(머니투데이, 2012.02.17) 참조

□ ‘닭의 머리’를 찾아서

한때 모두가 블루오션(blue ocean)을 외쳤던 적이 있다.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는 메시지다. 사실 말처럼 쉬운 전략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한 가지 메시지는 대부분의 전략을 비슷하게 만들고 결국 전략은 한정되게 된다.

「계구우후(鷄口牛後)」,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쇠꼬리는 되지 말자는 뜻이다. 사기(史記)의 소진열전(蘇秦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전국시대, 막강한 진(秦)나라가 크게 세력을 떨치면서 주변의 제(齊), 초(楚), 위(魏), 연(燕), 한(韓), 조(趙)의 6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유명한 병법가인 소진(蘇秦)은 6개국이 동맹하여 진나라를 대적하자는 합종책(合從策)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한나라의 선혜왕(宣惠王)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일당백의 강대한 군사력과 어진 임금을 가지고도 진을 신하로서 섬기게 된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면서 “차라리 닭의 주둥이가 될지언정(영위계구, 寧爲鷄口)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물위우후, 勿爲牛後)”는 속담을 들어 청하였다. 그는 선혜왕을 설득시킨 후 다른 나라들을 돌아 마침내 합종책을 성공시켰다.

요즘 기업들에게는 신성장동력 찾기가 지상 과제이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업종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수많은 제품이 생성되고 소멸된다. 살아남는 것은 1%에 불과하고 99%가 죽고 마는 치열한 레드오션(red ocean), 소위 ‘소꼬리 시장’이 된다. 아직 시작되지 않고 아무도 보지 못한 블루오션, 즉 ‘닭머리 시장’을 잡아야 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경쟁에 의해 흔탁해지지 않은 분야를 말한다. 게임의 법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은 무의미하다. 이와 같은 시장은 창의성에 의해 얻어질 수 있으며 기회 또한 무한하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면 양면성을 감안하더라도 닭머리 시장은 영원히 유효할 것이다.

사업을 좌우하여라. 사업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